

임시국회 공감대 ... 선거제 개혁 최대 화두

민주당 소집 필요성 공식화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출 마무리
3야 농성, 국회 정상화 변수
평화당, 릴레이로 단식 합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2월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집 필요성을 11일 공식화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선출되면서 12월 국회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국회가 열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분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 특위를 연정하고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야 3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한국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



“선거제도 바뀔시다” 민주당평화당 정동영(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 앞에서 ‘대표찾기 선거제도개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 유감을 표명하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미 ‘20일 원포인트 분회’ 등을 검토해 온 민주당도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 처리 ▲KTX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실태 점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 3당만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조

만간 12월 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임시국회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야 3당이 농성을 풀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이날까지 옛새제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하규 대표는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어음이 아닌 현찰을 달라”고 비유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평화당도 이날부터 소속 의원들이 번갈아 단식하는 ‘24시간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다. 첫 순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였다.

야 3당은 또 이날 녹색당·민중당·노동당·우리미래 등 원외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압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선거제 개혁안 합의 불발의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려 향후 여야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유치원 3법 불발시 패스트트랙”

홍영표 민주 원내대표...“탄력근로제 내년 2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내년 1월을 넘

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야 3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법관 탄핵소추 ‘속도’

민주당, 대상자 선정기준·명단 곧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련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뿐 아니라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들도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선출 ... 정책위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나경원 의원(4선·서울 동작을·사진)이 선출됐다. 나 의원과 한 조를 이룬 정용기 의원(재선·대전 대덕)은 정책위의장이 됐다.

나 의원은 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의원은 세 차례 도전 끝에 국내 보수 계열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나 의원은 당선 직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무도한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 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 “계파정치를 종식하고, 상대방에 주홍글씨를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역협상으로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는 장외투쟁과 정책저항운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의원들의 마음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조승수 “노회찬 재단 내달 24일 창립”

후원회원 5000명 목표

노회찬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은 11일 “내년 1월 24일 재단을 창립할 생각으로 5000명의 후원회원을 모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발기인 총회와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월21일 국회

사무처에 등록했고, 연내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고인께서 남긴 말과 글을 모아 정리하고 문집을 출판하는 일이 있고, 평전도 준비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노회찬을 만들기 위한 시민정치학교를 추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한 공론의 장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우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양도해주시는 소유주자분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해 받으신 분
 - 대표 카드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분
 - 태양광 사업을 영업할 수 있는 분
 - 태양광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회 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정관리	· 설계영업 경력자	나 주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 영업 관리직과 전무자 유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9330-2157, mca@daesco.kr, 접수기간 : ~ 채용시까지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